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2월호 184-193페이지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durano.com/moksin>).

## 지도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5)

느헤미야에 배우는 목회리더십

- 릭 워렌/ 새들백교회 목사

### 원리5: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그는 백성들에게 다가온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나쁜 소식부터 말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며,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며, 강조한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17절). 그는 여기서 감성에 호소하는 생생한 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곳은 황무하며...소화되었으며...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왜? 왜냐하면 백성들은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 매우 오랫동안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현실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만약 당신 집의 무엇인가가 부서져 있다면 첫 두세 주일 동안은 그것이 당신을 정말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6달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부서져 있다면?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무감각해져버릴 수 있다.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그는 백성들의 주의를 문제에 다시 집중시킨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태를 직면하도록 하고 있다.

3단계는 지도자가 현실과 직면하는 것, 4단계는 지도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과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불만족하게 되기 전까지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사무실에 변화를 창출하기 원한다면 --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도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이 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어느 정도의 비난을 견뎌내야만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향아리 속을 휘젓거나 배를 뒤튼드는 일을 하는 누군가는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상유지의 상태를 흔들며 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특징(mark)이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 동기 유발제를 사용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자긍심 (self esteem)에 호소하였다. 그는 “우리는 나가서 이 성을 중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돌무더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이 말들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지도자가 남다른 이유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만의 예정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며 기가 꺾인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이 곳에 와서 당신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어 당신들이 더 이상 수치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강력한 동기 유발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높은 동기에 호소한다. 유대인들

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역시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누구였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전세계가 조롱하고 있었다: “저 불쌍한 유대인들 좀 보라지.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조차 증거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성벽조차 증거하지 못해서 돌무더기 속에서 살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며 언약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느헤미야가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자긍심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역시 호소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극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는 외부적인 동기 유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내부적인 것들이다. 그는 외부적인 동기 유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역을 먼저 복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해바다로 가서 휴가를 즐기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부적 동기들은 점점 더 당신을 움직이지 못한다. 외부적 동기 유발제들은 아이들에게나 큰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한 류의 동기 유발제들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동기 부여는 외적이거나 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수치를 당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그 백성의 영광을 위해 성벽을 중건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올바른 종류의 동기 부여를 통해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 다음에 계속됩니다 )